

OPP 및 CPP 필름 시장 동향

Market Trend of OPP&CPP Film

I. 서론

최근 몇 년간 국내 OPP, CPP 필름 시장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포장 필름산업전체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OPP 필름의 경우 국내 및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및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와 PP원료 가격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가격에 적용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시장전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잠식 속도가 느려지긴 했으나 저가산 수입필름이 이미 상당 부분을 잠식한 상태로 OPP 필름 성장이 더욱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PP 필름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판매가 부진한 상태이며 기존 CPP 생산업체의 신규 라인 증설로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OPP, CPP 필름 생산업체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 OPP 필름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돼 있는 OPP 필름 생산업체는 대림산업(주), (주)삼영화학공업, 울촌화학(주), 자강산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있다.

업체별로 OPP 필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대림산업은 1996년부터 BO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인쇄, 포장용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대림은 2개 라인의 설비에서 24,000톤의 생산 능력 가운데 수출 7,000톤, 내수 15,000톤을 생산했다.

2004년 대비 생산능력 11%, 수출, 내수 각 12% 감소한 수치다. 환율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을 겪고 있는 대림은 올해 마이너스 5% 성장 증감율을 예상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 및 원료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저가공세로 맞서야 하는 중국수출을 중단하고

[표 1] OPP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2	24,000	7,000	15,000
삼영화학공업(주)	4	30,000	4,000	13,000
울촌화학(주)	3	26,000	3,600	자가소비 6,400 내수 16,000
자강산업(주)	1	8,400	720	7,200
(주)필맥스	3	25,000	8,000	17,000
(주)희승인더스트리	3	26,000	13,000	13,000

품질로 맞서야 하는 일본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삼영화학공업(주)는 OPP, CPP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OPP 필름의 용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인쇄용 29%, 섬유용 18%, LAMI용 12%, 테이프용 24%, 기타 17%를 공급하고 있다.

삼영화학은 지난 해 2004년과 마찬가지로 4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1개 라인을 가동하지 않아 30,000톤의 생산능력에 수출 4,000톤 내수 13,000톤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대비 생산능력 2,000톤, 수출 3,200톤 내수 1,000톤이 줄어든 수치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삼영화학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수입 필름의 판매로 인해 매출이 부족한 상태로 생산량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촌화학(주)의 OPP 필름은 주로 인쇄용으로 전체의 36% 생산하고 있으며 합지용 15%, 섬유포장 12%, 테이프 1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3개 라인 설비에서 26,000톤의 생산

능력 가운데 수출 3,600톤 내수 22,400톤을 기록했으며 이중 6,400톤을 농심에서 자가 소비하고 있다.

울촌화학 관계자는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저가 수입필름 사용량은 점차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내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울촌화학의 경우 주수요처인 농심의 수급물량에 따라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경쟁기업들보다 수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내수 위주로 경영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포장협회에 가입한 자강산업(주)은 2001년부터 O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자강의 OPP 필름은 식품 포장용 20%, 섬유 포장용 20%, 종이 합지용 20% 테이프용 10%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자강은 1개 라인을 가동하여 8,4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720톤, 내수 7,2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자강 관계자는 “급속한 사용량 감소와 원료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현재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원료가를 제품에 반영해야 하나 전체적인 시장 침체 등으로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주)서통 필름사업 부문을 인수한 (주)필맥스는 현재 BOPP, CPP, SPP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해 필맥스는 3개 라인을 보유하고 25,000톤의 생산 능력 중 수출 8,000톤, 내수 17,000톤을 기록했다.



(표 2) CPP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2	6,000	-	4,320
삼영화학공업(주)	1	5,000	200	4,000
(주)성일화학	3	7,500	548	4,420
유상공업(주)	3	8,000	800	7,200
울촌화학(주)	1	8,500	-	자가소비 7,200 내수 1,300
(주)필맥스	2	7,800	2,400	5,400

※ 유상공업(주) : 올해 신규 증설 1개 라인 제외

필맥스는 경쟁기업들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높은 편인데 2000년까지 중국수출은 중단했고 동남아 수출의존도를 줄여 일본과 유럽,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OPP, PET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OPP 필름은 포장용 49%, 합지용 19%, 테이프용 11%, 기타 2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3개 라인으로 2,6000톤의 생산능력을 기록한 화승은 수출 13,000톤, 내수 13,000톤을 공급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생산능력 13%, 수출 7%, 19%가 각각 감소했다.

현재 화승인더스트리는 경쟁기업들 중 가장 높은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 CPP 필름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돼 있는 CPP 생산업체는 삼민화학공업(주), 삼영화학공업(주), (주)성일화학, 유상공업(주), 울촌화학(주), (주)필맥스가 있다.

2004년 12월 울촌화학의 CPP 신규 라인 신설에 이어 최근 인성의 증착기 투자와 유상공업

이 신규라인을 증설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여 가격경쟁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민화학공업(주)은 지난 해 2대 라인을 보유하고 6,000톤의 생산 능력 중 내수 4,320톤을 공급했다.

삼민은 CPP 필름의 공급과잉으로 자사의 생산 능력에 비해 내수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삼민의 관계자는 "CPP 필름 시장은 공급량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회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현재 삼민은 수출은 포화상태가 됐으며 내수는 10~15%의 매출 감소량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삼영화학공업(주)는 1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해 5,000톤의 캡파로 수출 200톤, 내수 4,000톤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대비 생산능력 17%, 수출 400톤이 감소한 수치다.

삼영 역시 자사 생산능력에 비해 공급량은 적어 현재 CPP 필름 시장의 공급과잉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삼영의 관계자는 "장기적인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국제 필름의 단가 경쟁력 약화로 생산량은 당분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79년부터 C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성일화학은 열접착성, 야채포장용, 식빵 포장용 등을 생산하고 있다.

3개 라인을 운영중에 있는 성일은 지난 해 7,500톤의 캡파로 수출 548톤, 내수 4,420톤을 공급했다.

성일의 관계자는 "신규투자 및 영세업체의 공

격적인 가격 정책과 공급과잉으로 가동율은 더욱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1개 라인을 새로 증설한 유상공업(주)은 지난해 3개 라인으로 생산능력 8,000톤, 수출 8,000톤, 내수 7,200톤을 기록했다.

유상공업(주)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라인을 가동 올해 4개 라인으로 12,000톤의 캡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말 평택 포승 공단에 1개의 CPP 필름 생산라인을 가동한 울촌화학(주)은 지난해 8,500톤의 캡파로 OPP 필름과 마찬가지로 7,200톤을 농심에서 자가소비하고 내수 1,300톤을 공급했다.

(주)필맥스는 지난해 2개 라인으로 생산능력 7,800톤, 수출 2,400톤, 내수 5,400톤을 공급했다.

2004년에 비해 생산능력 7%, 내수 1,200톤이 감소한 반면 수출은 600톤이 증가했다. 필맥스 관계자는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의 CPP 필름 시장은 OPP 필름의 60% 이상까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CPP 필름 시장이 OPP 필름 시장보다 성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증설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캔 시장이 파우치 시장으로 대체되고 있고 타이완, 베트남, 인디아 등 동남아의 CPP 메이커들이 파우치 시장 공략을 위해 설비를 대형화하고 있어 국내 시장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I. 결론

OPP, CPP 필름 시장은 몇 년간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이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환율하락으로 수출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저가필름 유입, 공급과잉, 수요정체 등이 여전히 악재로 남아 있어 OPP, CPP 시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메이커들은 저마다 특화된 분야에서 기술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에서 공급과잉은 의미가 없으며 일본과 미국, 유럽시장 수출은 품질보다 정확한 납기와 안정적 공급이 우선시돼야 신뢰를 얻어 수출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OPP, CPP 필름 시장은 국내 기업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틈새시장을 노려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로 경쟁력을 갖춰 현재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http://www.ko)

월간 포장계는 포장업계에 유익한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익는
(사)한국포장협회 편집실로 해주십시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